

기 때문이다. 가계 저주론자들은 네 가지 중요한 성경적 구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.

(1) 삼사 대까지 이르는 조상의 죄(출 20:5)

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 중 제3계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. “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”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(출 20:5). ‘가계저주론자’의 사도로 여겨지는 이윤호에

따르면 “출애굽기 20장 5절은 한 가족이 받게 될 죄와 결과에 대해 말씀한다. 하나님의 심판은 한 가족이나 족속의 구성원들에게 즉시로 임하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 있다”(1999:50). ‘즉시로’는 필자의 강조임).

그렇지만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 이윤호가 말하는 대로 ‘가계저주론’을 지지하고 “하나님의 심판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즉시로 임함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? 이 본문이 ‘가계저주론’의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.

1)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배경 가운데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(contra 이윤호 89쪽 #1항).

2) 따라서 하나님은 ‘질투하는 하나님’(*el qanna*)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남편으로서 독점적인 법적 권리를 갖고 주장하실 수 있다(출 34:14, 신 4:24; 5:9; 6:15, 수 24:19, 나 1:2).

3) ‘나를 미워하는 자’(*shon'ay*, 분사형)는 “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(사상적

으로나 행동으로) 대적하는 자”를 뜻하므로 일반적인 범죄자로 여길 수 없다.

4) ‘아버지의 죄’(*'awon 'abot*)를 ‘자식 삼사 대까지’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저주 공식에 등장하는 ‘저주를 받으리라’(*'arur*)는 말과 다를 뿐 아니라 부모의 죄가 ‘자동적으로’나 ‘주술적으로’ 꼭 삼사 대까지 흐르리라는 뜻도 아니다.

5) 죄를 심판하리라(*poqed 'awon*)는 말은 하나님의 법적인 징계로서 “미래에 이런 일이

십계명의 목표는 교육적이기에

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계적으로

생각해서는 안된다.

일어나리라” 혹은 “일어날 수 있다”는 뜻이다. 따라서 죄인의 범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. 예를 들어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했지만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셨다(욥 4:4~11).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나봇을 죽인 아합에게 죽음을 선언하였지만 아합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그의 심판을 연기하셨다(왕상 21:27~29).

6)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그의 자녀 됨에서 완전히 끊어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요약하자면, 십계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계적